

## ‘큰 절’에 흠피가 없어요?

### 관람료 사찰 등 62% 개설 안돼 ... 교구본사급도 관리부실

‘눈 뜬’ 사찰은 동영상에 외국어 서비스  
 정보입력 · 시설투자 · 인력양성 시급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일컫는 유비쿼터스가 21세기 IT 산업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불교계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기만 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e코리아’를 ‘u코리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조차 없는 사찰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조계종 24교구본사 중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속초 신흥사 한 곳이다. 신흥사측은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오지 않아 위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

움을 토로한다.

교구본사 중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사찰검색란에 연결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김제 금산사는 잘못된 주소로 연결돼 있다.

또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4곳 중 한곳은 사찰 홈페이지에 종단 홈페이지를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담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은 곳도 7곳이나 된다.

특히 어떤 교구본사는 낮 뜨거운 성인광고물을 한달 넘게 게시판에 방치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사찰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람료·지역·특별분담금 사찰들의 인터넷 환경은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52개

중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20곳뿐이다. 사찰별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약 62%가 ‘사이버 무적자(無籍者)’ 신세인 셈이다.

이른바 서울 3사 중 한 곳인 강남 봉은사와 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이 찾는 남해 보리암,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 서울 시민들의 정신적 쉼터인 과천 연주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봉은사측은 “좀 더 잘 하려는 욕심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졌다”며 “올해 내에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료 · 지역 · 특별분담금 사찰 중 종단 홈페이지 사찰검색에 연결된 사찰은 10곳뿐이며, 사찰 홈페이지에 종단 홈페이지를 연결한 곳은 9곳이다. 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한 곳은 4곳.

2002년 문화관광부 후원 KT협찬으로 본지 등이 실시한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사찰 컴퓨터 보급률이 41.7%, 사찰 홈페이지 운영 비율이 13.3%로 대단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04년 9월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사찰 인터넷

환경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가 있는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단순하면서도 정적으로 만들어 시각적 효과와 변화에 민감한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교구본사 가운데 경주 불국사는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와 일어로 사찰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플래시와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 평창 월정사, 양산 통도사도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홈페이지에서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특경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사이버 연등도 달 수 있다.

강화 전등사와 청도 운문사 등은 영어와 일어로도 사찰을 소개하고 있으며, 갖바의 선본사와 공주 동학사, 안동 봉정사 등은 각종 불교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용철 교수는 “모든 문제는 불교정보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종단 차원



한가위 송편 많이 드시고 오래 사세요  
 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한가위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많은 송편은 노인복지센터 노인들과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사진·박재관 기자

이나 불교정보화협회 등 단일한 조직 차원에서 정보포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박맹수 전산과장도 “많은 사찰들이 산속에 위치해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점도 있지만 주지스님 등 사찰 소인자 스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교구본사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원고 모집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교계 곳곳의 고질병에 할 말은 없으십니까?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내주세요.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접수 마감: 9월 30일

■접수: 우편 (110-170)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문의전화: (02)722-4162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고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 불교신론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박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론 및 불타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론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eisv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시상내역  
 ▷ 대상(유망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태고종 총무원장상  
 - 원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액설을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론과 불타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랑자 선생(에세이문학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서 읽는 문화 정착시키자”

####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총회 가져

#### 회장엔 원택 스님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9월 20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장경각 대표 원택 스님이, 수석부회장에 민족사 윤창화 대표, 부회장에 불서출판 운주사 임희근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이번에 출범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992년 결성됐던 ‘불교출판협의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출판사뿐만 아니라 불교 서점과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 관계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단체다.

원택 스님은 “불교출판계의 장기 침체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적 필자 개발과 본사급 사찰의 도서관 건립 등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장인턴부 3명 한편 이날 감사에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 사무국장에 여시아문 조동규 부장이 선출됐다. 여수령 기자

마하몰, e트러스트 인증  
 6년연속 우수 몰로 선정돼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인 마하몰(www.mahamall.co.kr)이 ‘e트러스트(eTrust)’ 인증업체로 선정됐다. ‘e트러스트’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위해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인증 마크제도다.

마하몰은 1999년 6월 제1회 우수 사이버몰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전자상거래 전문 우수쇼핑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동우 기자

### ‘할’

12년전 우사 신임 청은개걸 하근 선방행  
 다시 돌아와  
 참회의 인사올리 니

동행!  
 돌아서면 잊어버려야지

그림·조태호  
 지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 제2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 약천사 양력 10월 10일 (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심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2004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8월 27일) ● 장 소: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조재): 양력 10월 10일 (음, 8월 27일) ● 기도회(망(재)):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0일)  
 ● 기도 동참비: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1만원), 아기우 (무료)  
 ● 준 비 물: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태중(낙태, 유산) 아기 지장보살님